**우연이 불러온 마법, 그리고 마법보다 불확실한 사랑**

2019-12551 박재언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 〈우연과 상상〉(2021)은 세 개의 단편을 통해 사랑과 인간관계의 불확실성을 탐색하는 작품이다. 그중 첫 번째 에피소드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세 인물, 메이코, 츠구미, 카즈키의 얽힌 관계 속에서 감정의 진폭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영화는 우연히 다시 얽힌 이들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변덕스럽고, 때로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임을 보여준다. 하마구치는 사건보다 감정의 미세한 진동에 집중하며, 제목 속 두 단어 ‘우연’과 ‘상상’을 통해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두 지점을 명확히 대비시킨다. 우연은 관계의 문을 열고, 상상은 그 문을 닫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마법보다 불확실한 것’, 즉 인간이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도 끝내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하마구치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한다.[[1]](#footnote-1) 영화는 메이코와 친구 츠구미가 함께 촬영을 마치고 택시를 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카메라는 택시의 좁은 공간 속에서 두 인물의 얼굴을 교차로 비추며,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길게 보여준다. 츠구미는 최근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 카즈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자신과 너무 잘 맞았고, 1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카즈키와의 시간을 마법 같았다고 말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는 불가해한 기적의 감각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러나 그 대화가 끝난 직후, 관객은 그 마법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목격하게 된다. 츠구미의 ‘마법’이 한순간에 메이코에게는 불안과 충격의 감정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 남자, 카즈키는 다름 아닌 메이코의 전 연인이었던 것이다.

하마구치는 이 우연한 연결을 인물의 감정이 아닌 ‘상황의 아이러니’로 연출한다. 메이코는 츠구미의 미팅 이야기에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츠구미의 말에 열심히 질문도 하며 리액션을 해준다. 그리고 잠시 후, 택시가 츠구미의 집 앞에 도착하자 메이코는 돌연 운전사에게 “다시 돌아가 달라”고 말한다. 그녀가 향한 곳은 카즈키의 사무실이다. 이 짧은 장면 하나로, 하마구치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메이코의 행동은 설명되지 않으며, 그저 사랑의 잔향이 남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으로 그려진다.

사무실 장면은 영화의 중심부이자,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이라는 부제가 직접 언급되는 대목이다. 메이코와 카즈키의 대화는 애정과 원망, 후회와 욕망이 얽힌 긴장으로 가득하다. 메이코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비난하고 시험한다. 그리고 마침내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을 믿어볼래?”라는 대사를 던진다. 이 한 문장은 영화 전체의 주제를 집약한다. 츠구미의 ‘마법’이 사랑의 완벽한 순간이라면, 메이코의 ‘불확실한 것’은 그 완벽함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의 지속성이다. 즉, 사랑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잔향 속에서 무언가를 믿으려 한다. 하마구치는 이 대사를 통해, 사랑이란 감정이 언제나 확실함이 아니라 불확실함 위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한다.

카즈키는 그녀의 말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대신 둘은 한동안 서로의 시선을 피하다가, 결국 잠시 포옹한다. 그러나 이 포옹은 화해나 재회의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미련과 체념, 그리고 과거를 보내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진다. 하마구치는 이 장면을 긴 롱테이크로 담으며, 인물 사이의 감정이 폭발하기보다는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퇴근했던 여직원이 노트북을 가지러 돌아오며, 두 사람의 시간이 끝난다. 메이코가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가고, 카즈키가 그녀를 따라가려 하자, 여직원이 왜 쫓아가냐고 묻는다.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카즈키와 메이코의 짧은 재회는 현실의 시간 속으로 흩어진다. 하마구치는 이렇게 ‘감정의 절정’을 강제로 끊음으로써, 사랑의 마법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며칠 뒤 카페에서, 메이코와 츠구미는 다시 만난다. 츠구미는 카즈키와의 두 번째 데이트를 앞두고 행복해한다. 그때 카즈키가 나타나고,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변한다. 메이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그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츠구미는 충격을 받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카즈키는 그녀를 따라 나간다. 그러나 곧 관객은 이 장면이 메이코의 상상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는다. 현실의 메이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고 계산을 부탁한 뒤 자리를 뜬다. 하마구치는 이 반전 구조를 통해, 인간이 상상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상상 장면은 메이코의 내면적 변화를 상징한다. 사무실에서 그녀는 여전히 카즈키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믿었다. 그러나 상상 속에서는 오히려 그가 츠구미를 따라 나간다. 이 전환은 단순한 패배의 상상이 아니라, 감정의 진실을 깨닫는 성찰의 순간이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스스로의 욕망과 미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아오지 않을 사랑을 인정한다. 그 결과 현실의 메이코는 상상 속에서 한때 이루었던 파국 대신, 침묵과 절제를 택한다. 그녀가 카페를 나서며 “그 만남이 우리를 위한 마법이었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녀는 이제 사랑의 실패를 고통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결국 사랑의 완벽함을 묘사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 완벽함이 깨진 뒤에도 남는 감정의 불완전함을 포착하는 영화다. 하마구치는 ‘우연’을 통해 감정을 다시 불러오고, ‘불확실한 것’을 통해 그 감정을 견디게 하며, ‘상상’을 통해 그것을 해소한다. 메이코는 더 이상 카즈키의 시선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상상의 장면을 통해 자신만의 감정 세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스스로를 구원한다. 하마구치는 이 과정을 조용한 시선으로 담아내며, 관객에게 묻는다. “당신은 불확실한 감정을 믿을 수 있는가?”

결국 메이코가 믿으려 한 것은 마법이 아니라,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인간의 감정 그 자체였다. 사랑은 우연히 시작되고, 상상 속에서 마무리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며 인간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하마구치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만 인간이 진정한 성찰에 다다를 수 있음을, 조용하고도 단단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1. 씨네21, 『BIFF #4호 [인터뷰] 하마구치 류스케가 말하는 우연의 마법』, <https://cine21.com/news/view/?mag\_id=98756>, 2025.10.15 [↑](#footnote-ref-1)